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운섭 의원

“우이동 불법벌목 민원 서울시 심의 보류해야”

조운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29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이동 산63-56번지 불법벌목 민원’과 관련 발언을 실시했다.

조운섭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때 박겸수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에서 답변요지가 시원치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발언대에 섰다”며 “박 청장께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니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시겠다 했는데 서울시평가위원회에서 8월 6일 비오톱 등급 현장실사심의가 결정돼 곧 심의가 진행될 텐데 수사결과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결과가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청에서 고발사건이나 심의를



중단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구청장은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 의원은 “구정질문 때 청장께서는 8월 6일 심의 결정난 것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주 월요일 국·과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매주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동북일보 4면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비오톱 등급 현장 실사 보류해야”

조운섭 의원

(자유한국당/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조운섭 의원은 10월 29일 열린 제2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우이동 산63-56번지 불법벌목 민원과 관련해 발언했다. 조 의원은 박겸수 구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니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사결과가 나오려면 경찰에서 검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서울시 평가위원회에서 8월 6일



▲ 조운섭 의원.

비오톱 등급 현장 실사 심의가 결정돼 곧 심의가 진행될이다. 그러면 비오톱 심의는 진행되고 구청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한다고 하니 상식 밖의 답변이라면서, 시에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심의 할 수 있게 서울시 심의를 보류해줄 것을 박 청장에게 요청했다. 조 의원은 구정질문 때 청장께서는 8월 6일 심의결정 난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주 월요일 국·과장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중요한 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다 하면 매주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운섭 의원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조윤섭 강북구의원 5분발언〉

우이동 산63-56번지 불법벌목 민원에 대해



▲조윤섭 강북구의원

우이동 산63-56번지 불법벌목 민원과 관련해 지난 구정질문에서 박점수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정확한 답변요지가 시원치 않아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발언한다.

박 청장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니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평가위원회에서 8월 6일 비오톱 등급 현장 실사 심의가 결정되어 곧 심의가 진행될텐데 수사결과가 경찰에서 검찰로가서 결과가 나올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구청에서 고발사건이나 심의를 중단시켜야 하는게 아니냐? 심의는 진행하고 구청장께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한다고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상식 밖이다.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큰일이 발생

될 것이다. 청장께서는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심의 할 수 있게 서울시 심의를 보류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구정질문 때 청장께서는 8월 6일 심의결정 난 것을 보고 받은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주 월요일 국·과장 회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다. 이런 중요한 상황을 보고 받지 않았다하면은 매주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

그리고 4~5일전 본 의원한테 한건의 제보 전화가 왔다. 공무원이 연루되었다는 제보 전화였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사건을 잘 마무리 해줬으면 하는 전화였다.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우이동 산63-56번지 불법벌목 해결은?



조윤섭 의원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지난 10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아카데미하우스 내 시립도서관 유치'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윤섭 의원은 우이동 산63-56번지 불법벌목 민원과 관련해 “지난 구정질문에서 박점수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아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히고 “지난 질문에서 박

청장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니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평가위원회에서 8월 6일 비오톱 등급 현장 실사 심의가 결정되어서 곧 심의가 진행될텐 데 수사결과가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구청에서 고발사건이나 심의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심의는 진행하고 구청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를 한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은 상식 밖이라며 청장은 시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심의 할 수 있게 서울시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말하고 답변을 요구했다.